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대경일보

김무환 POSTECH 총장·정완균 교수 등 5명, 공학한림원 신임회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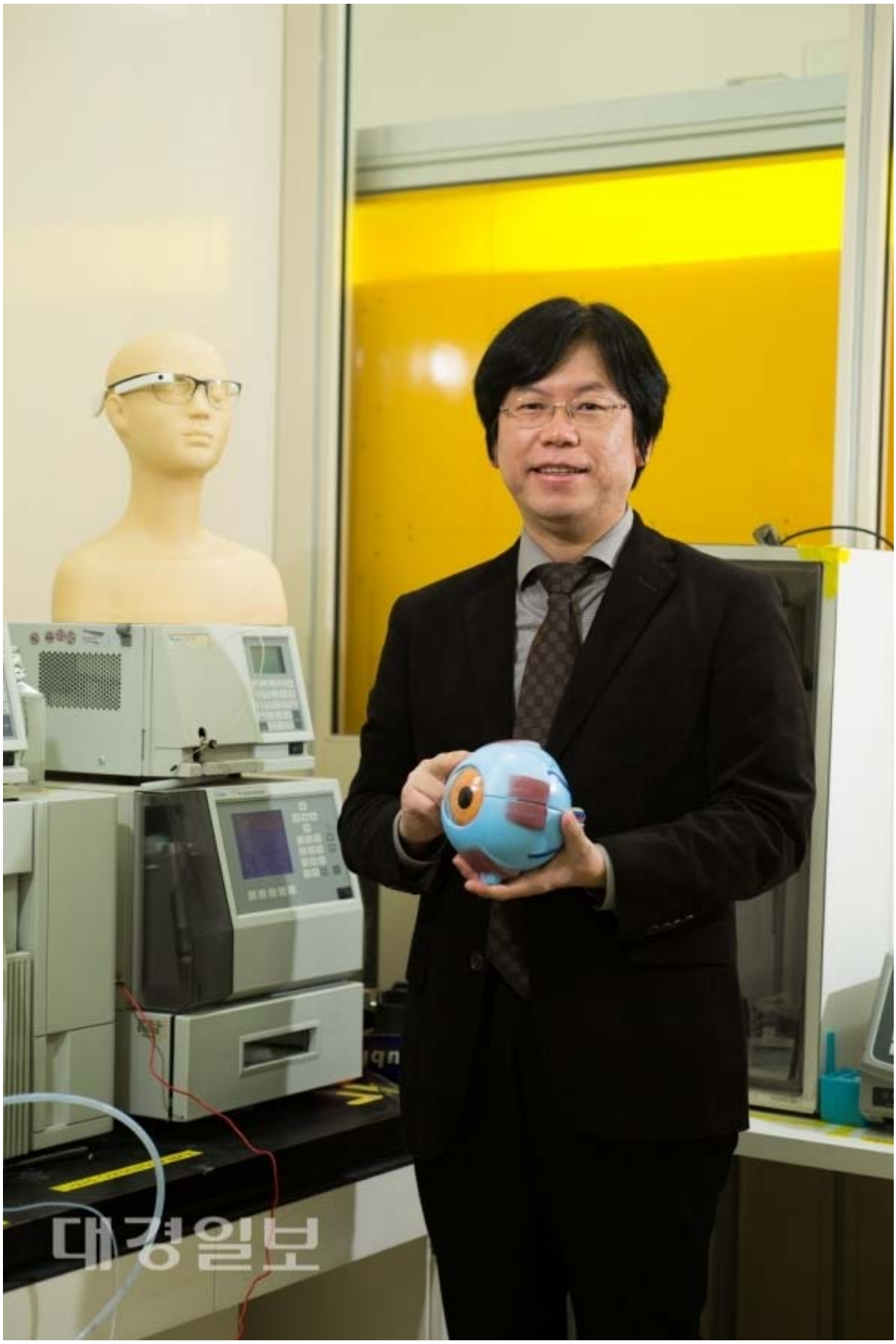
김민지 기자 승인 2020.01.07 19:27

▲ 김무환 POSTECH 총장 /POSTECH 제공

▲ 정완균 기계공학과 교수 /POSTECH 제공

▲ 박성진 기계공학과 교수 /POSTECH 제공

▲ 용기중 화학공학과 교수 /POSTECH 제공



▲ 한세광 신소재공학과 교수 /POSTECH 제공

POSTECH(포항공과대학교)은 7일 김무환 총장을 비롯한 5명의 교수가 국내 최고 공학기술 학술단체로 손꼽히는 한국공학한림원의 정회원과 일반회원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김무환 총장은 원자력 산업의 핵심 메커니즘인 이상 유동 열전달 연구에서 다양한 측정 기법과 실험 장치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재료자원공학 분야 정회원으로 선임됐다.

기계공학 분야는 바이오 기술을 응용한 진단검사용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정완균 기계공학과 교수가 정회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박성진 기계공학과 교수, 용기중 화학공학과 교수, 한세광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신임 일반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국공학한림원은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공학기술분야 학술단체로, 학문적 업적뿐 아니라 세계 최초 기술 개발업적, 특허, 인력 양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업적을 심사한 뒤 전체 회원의 서면 투표를 통해 정회원을 뽑는다. 2020년에는 정회원 45명, 일반회원 68명이 선정됐다.

김민지 기자 10hyacinth@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